

##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 삼공본풀이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The Formation of Seodongyo() and The Source of Its Prophetic Power

---

저자 (Authors)	정운채 Un-Chae Jeong
출처 (Source)	<a href="#">통일인문학 28</a> , 1996.08, 23-41(19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28</a> , 1996.08, 23-41(1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a> The Institute of Humanities Research in Konkuk Univ.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57069">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57069</a>
APA Style	정운채 (1996).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 통일인문학, 28, 23-4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0 10:27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

—「삼공본풀이」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정 운 채

(진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차 례

- |              |                      |
|--------------|----------------------|
| I. 서론        | Ⅲ.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의 유래 |
| Ⅱ. 「서동요」의 형성 | Ⅳ. 결론                |

## I. 서론

「서동요」의 형성에 대해서는 임동권,<sup>1)</sup> 박노준,<sup>2)</sup> 김종우,<sup>3)</sup> 엄국현,<sup>4)</sup> 장진호<sup>5)</sup> 등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임동권은, “이 노래가 ‘동요만경(童謠滿京)’이라 해서 동요라 명시하였으며, 또 만경(滿京)했다, 즉 경내(京內)의 군동(群童)이 모두 불렀다는 것은 그 전파성(傳播性)을 지적한 것이며, 이것은 민요의 속성의 하나인 대중의 소유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서동요」가 서동 작(作)이라 하지만 실은 재래에 있었던 민요에 착안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니 민요로서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sup>6)</sup>고 하였다. 박노준은 근래에까지 아동들의 세계에서 널리 불리어진 전통적인 동요 곧 “얼래꺄래 얼래꺄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와 어디어디서 무엇했대요”라는 노래를 제시하고,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서동요」라 불리어진 이 노래는 서동 이전에 이미 신라의 아동 사회에 널리 회자되던 ‘얼래꺄래 얼래꺄래’류의 동요이다. 이러한 동요를 백제로부터 잠입해 들어온 서동이 듣고 자기 이름과 선화공주의 이름을 ‘누구누구는’과 ‘누구누구를’ 부분에다 작위적으로 삽입하여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로맨스가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 양 묘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전파시킨 것으로 판단코자 한다.”<sup>7)</sup>고 하였다. 김종우는, “작품 내용이 전적으로 서동의

1) 任東權, 『韓國民謠史』(집문당, 1964).

2) 박노준, 「舊童謠의 歷史性과 說話性—主로 그 歷史性의 內幕에 대한 考察—」, 『語文論集』 17(고려대 국어국문학회, 1976), 『新羅歌謠의 研究』(열화당, 1982)에 재수록.

3) 金鍾雨 「舊童謠와 그 說話의 背景攷」, 『教育論集』 5(부산대 교육대학원, 1980), 『三國遺事와 문예적 가치해명』(새문사, 1982)에 재수록.

4) 엄국현, 「舊童謠 研究」, 『韓國文學論叢』 11(한국문화회, 1990.10).

5) 張珍吳, 『新羅鄉歌의 研究』(형설출판사, 1993).

6) 任東權, 앞의 책, 33-34쪽.

7) 박노준, 앞의 글, 12-14쪽.

작이라 하기는 어렵고, 이미 있어 온 민요 혹은 가요에다 한 어구를 자기의 뜻에 맞도록 대치시킨 것에 불과하다.”<sup>8)</sup>고 하였다. 엄국현은, “원래는 풍요를 기원하는 일종의 주술적인 제의요(祭儀謠)였던 것이 서동에 의해 개작되면서 남녀의 은밀한 교합을 폭로하고 놀려 대기 위한 얼레갈래류의 유희적인 동요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고, 사랑의 주가(呪歌)로도 임혀지게 되었던 것이다.”<sup>9)</sup>라고 하였다. 장진호는, “서동이 신라 서울에 와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라에 와서 갑자기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일찍이 상굴서여(常掘薯蕷)하면서 당대에 널리 불리어지고 있던 노래를 밑바탕으로 하여, 그가 개변·개작했을 것임도 추측할 수 있는 것”<sup>10)</sup>이라 하고 또, “이 노래는 민요로서, 그리고 추측이긴 하지만, 폭을 넓히면 서사무가의 삼입 가요로서 세상에 회전되어 온 원래의 ‘마통이 노래’가 무왕과 선화공주 이야기에 결부되어져 민요의 일속성인 가사 대치로 생성된 노래”<sup>11)</sup>라고 하였다.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능우,<sup>12)</sup> 임기중,<sup>13)</sup> 김열규,<sup>14)</sup> 윤영옥,<sup>15)</sup> 김병욱,<sup>16)</sup> 김승찬<sup>17)</sup> 등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이능우는, “자기의 소원을 향가로서 부르되 그 희망을 이미 성취한 것처럼 불러 버리는 태도를 가진 노래인 것이다. 이러한으로써 마치 그 향가란 것에 어느 소원 성취의 마력이 붙어 있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내용의 것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대표로서는 「서동요」와 「혜성가」가 들어진다.”<sup>18)</sup>고 하였다. 임기중은, “서동요는 선화공주를 취하기 위해 부른 노래이면서 이미 그 내용은 선화공주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론 참요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한편 연애 주가적인 효험이 나타난 것이다.”<sup>19)</sup>라고 하였다. 김열규는, “이 노래는 장차 일어날 일의 선행적(先行的) 모방이다. 이 선행적 모방이 바로 이 노래의 주술적인 계계(詭計)다.”<sup>20)</sup>라고 하였다. 윤영옥은, “본요(本謠)를 ‘사랑의 주가(呪歌)’니 ‘상황을 전도시켜 버린 Irony’니 해도 좋으나, ‘乃作謠 誘群童唱之’한 심리는 바로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속언(俗諺) 바로 그것으로 ‘소문’은 곧 ‘사실’이라는 일종의 언어 주술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sup>21)</sup>고 하였다. 김병욱은, “이 노래에는 서술된 행동을 실현화시키려는 주술적 의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사(呪詞)의 일반적 성격인 환기(喚起), 서술(敘述), 명령(命

8) 金鍾雨, 앞의 글, 110쪽.

9) 엄국현, 앞의 글, 71쪽.

10) 張珍昊, 앞의 책, 182쪽.

11) 張珍昊, 앞의 책, 186-187쪽.

12) 李能雨, 「鄉歌의 魔力—그 장르의 性格에 對하여—」, 『現代文學』 21(2권 9호)(현대문학사, 1956).

13) 林基中, 「新羅歌謠에 나타난 呪歌觀」, 『東岳語文論集』 5(동악어문학회, 1967).

14) 金烈圭, 「鄉歌의 文學的 研究 一斑」,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15) 尹榮玉, 「舊童傳承, 그 童謠의 一考察」, 『韓國語文論叢』(우촌강북수박사회학기념논문집, 형실출판사, 1976. 6).

16) 金炳旭, 「舊童謠考」, 『百濟研究』 7(백제연구소, 1976. 12).

17) 金承璨, 「『三國遺事』所載 鄉歌의 呪術의 特質」, 『三國遺事와 문예적 가치해명』(새문사, 1982).

18) 李能雨, 앞의 글, 197-198쪽.

19) 林基中, 앞의 글, 91쪽.

20) 金烈圭, 앞의 글, 15쪽.

21) 尹榮玉, 앞의 글, 581쪽.

습)이 이 「서동요」에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술의 대상은 선화공주이고 주술을 거는 사람은 서동임을 생각할 때 주사의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일종의 소극적인 주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고 하였다. 김승찬은, “이 가사의 형식은 4구체의 단형으로서 소박하게 남녀상열(男女相悅)의 행동을 단순하게 정서의 환기 없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원하고 미리 부른 주가적(呪歌的) 성격을 띤 동요이다. 즉 참요적(讖謠的) 성격을 지닌 민요이다.”<sup>23)</sup>고 하였다.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에 대한 기왕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서동요」는 전래되고 있던 민요에 서동과 선화공주라는 고유명사를 대입시켜 형성된 것이며, 둘째,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의 선행적 모방이라는 형식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긍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곧 「서동요」가 되기 이전의 전래 민요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미래에 일어날 일의 선행적 모방이라는 예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인데, 왜 서동과 선화공주의 결연 및 성공과 유사한 사례가 그러한 민요를 통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본 고에서는 「삼공본풀이」와의 관련에 주목하여 「서동요」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예언적인 힘 곧 ‘동요지험(童謠之驗)’은 무엇으로부터 유래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 II. 「서동요」의 형성

필자는 「서동요」가 들어 있는 「무왕설화」가 「온달설화」 및 「삼공본풀이」와 동일 계통의 설화임에 주목하여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논의한 바 있다.<sup>24)</sup> 그리하여 「삼공본풀이」는 일상적 질서로부터 삶의 본질을 자각하고 실현하는 신화적 질서로 회귀하는 ‘감은장애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온달설화」는 체제의 권위를 내세우는 평강왕보다도 오히려 더 체제의 원리에 철저한 ‘평강공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왕설화」는 잠든 의식으로부터 깨어나서 평강공주의 속성들로부터 감은장애기의 속성들로 성숙해 가는 ‘선화공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sup>25)</sup>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서동요」가 출현하게 되는 계기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곧 「서동요」는 선화공주의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선화공주가 하고 싶은 말이 감은장애기의 발언과 같은 것임을 미리 알아채고, 이로부터 감은장애기가 구축했던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에 대한 예감이 충일함으로써, 잠든 선화공주를 깨우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을

22) 金炳旭, 앞의 글, 61쪽.

23) 金承塚, 앞의 글, II : 65쪽.

24) 鄭雲采,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建國語文學』 제19·20합집(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5)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선화공주, 평강공주, 감은장애기 등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세 설화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25) 鄭雲采, 앞의 글, 335-348쪽.

때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6)</sup>

「서동요」의 출현 계기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한국 가요의 발생 조건의 문제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필자는 다시 「서동요」를 감은장애기의 발언 및 평강공주의 발언과 비교하였다.<sup>27)</sup> 그 결과 「서동요」는, 첫째, 언표 주체의 측면에서 내재적으로는 선화공주 자신을 주장하면서도, 외현적으로는 정작 선화공주 자신은 의식이 깨어 있지 않아 그 신화적 속성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선화공주가 아닌 서동이 내면적인 영웅성을 발휘하여 언표하는 상황을 계기로 출현하였으며, 둘째, 언표 내용의 측면에서 내재적으로는 부녀 대립이 중심일 때 핵심 문제로 떠오르는 삶의 본질을 언급하면서도, 외현적으로는 이미 부녀 대립이 아닌 남녀 결연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에서 유래하는 애정 현상으로 언표하게 되는 상황을 계기로 출현하였으며, 셋째, 언표 근거의 측면에서 내재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체제의 원리가 될 수 있으면서도, 외현적으로는 그 보편적인 체제의 원리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특성 곧 그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주목함으로써 개인의 욕망에 근거하여 언표할 수 있는 상황을 계기로 출현하였으며, 넷째, 언표 효과의 측면에서 내재적으로는 불변하는 것과 합리적인 것에 대한 염원으로서 강한 설득력을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외현적으로는 강한 현실 부정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강왕의 세계처럼 공고한 세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비난을 유도할 만큼 이를 감연히 부정함으로써 감은장애기의 세계처럼 새로운 세계를 지향할 때 출현하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sup>28)</sup>

이상의 연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서동요」가 「온달설화」의 상황에서 「삼공본풀이」로의 회귀를 지향할 때 출현한 것임은 드러낸 셈이다. 이제부터 풀어야 할 문제는 「서동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서동요」가 지향하고 있는 「삼공본풀이」에 주목함으로써 그 한 실마리를 풀어 보고자 한다. 먼저 「삼공본풀이」 전문을 인용한다.

(1) 올라 옷상실은 아방국이고 느려 젓상실은 어명국이고, 질레에서 아랜녁히 시절 준다 언어 먹으레 가단 서로 만난 천상배필 두 부처가 됩니다. 처음 난 게 온장애기, 버금챗 난 게 늦장애기, 그 딸 성제 솟아 나난 아침인 밥을 먹고 즈냐인 죽을 쑤난 동냥흠을 실러 두언, 그 애기 성젤 키와 두언 난 것은 감은장애기요구나. 이 애기가 커가난 집안이 츠츠 부제로 되여네. 지새집도 맏 츠래 밭에 논도 맏 개, 천하를 거부로 살아지연, 든발 종도 아흠이여 난밭 종도 아흠이여 돌꺨쉬가 수천 개라.

(2) 잘 살아지난, 흐를날은 비가 온다. 심심한단, “큰딸애기 이레 오라. 말이나 물어 보저. 넌 누게 덕에 사느냐.” “하늘님이 덕이외다. 지에님이 덕이외다. 아방왕이 덕이외다. 어명왕이 덕이외다.” “내 즈식이 분명하다. 네 방으로 들어가라. 셋딸애기 어서 오라. 들어 보저. 셋딸애기 누게 덕에 사느냐.” “하늘님이 덕입니다. 지에님이 덕입니다. 아방왕이 덕입니다. 어명왕이 덕입니다.”

26) 鄭雲采, 앞의 글, 348-351쪽.

27) 鄭雲采, 「「서동요」의 성격 및 출현 계기와 한국 가요의 발생 조건」, 『국어교육』 90(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12).

28) 鄭雲采, 앞의 글, 264-274쪽.

“내 조식이 분명하다. 네 방으로 들어 가라.<sup>29)</sup> 감은장애기 들어 오라. 물어 보저. 누계 덕에 사느냐.” “하늘님이 덕입니다. 지에<sup>30)</sup>님이 덕입니다. 어명광 아방 덕택인들 웃소리까마는 흠데 나는 뽕뽕 선 그릇이 덕입니다.” “내 조식이 아니로다. 나고가라.”

(3-1) 감은 암쇠 내여 주멍 입던 이장 모두 놓고 늦인득이 정하님도 내여 주고 비가 잘잘 오람서도 나고가랜 보낸다. 주충골은 눈물이 연추반에 비가 지듯흐옵시멍 아방왕도 이별하고 어명왕도 이별하고 나고 간다. 내몰아두언 어이웃고 시매우언 “은장애기야 저 올래에 나고 보라. 느 아시 올래에 싯거든 식은 밥에 물즈미라도 햅영 가랭 하라.” 은장애긴 나간시난, “햅저 재게 가불라 아방도 느 따리레 나오람저. 어명도 느 따리레 나오람저. 어서 가라.” 햅여 두언, 몰팡 돌레레 올라사난 청주냉이 몸이 되어 간다. 큰딸애기 아니 오난, “셋딸애기야 저 올래에 가고 보라 느 성하고 느 아시라 아니 왁저. 식은 밥에 물즈미라도 햅영 가랭 하라.” 간 보난 지아시만 시난, “햅저 가불라. 아방이영 어명이영 늘 따리레 오람저.” 햅여 두언, 불켓막 웃테레 올라사난 뽕뽕버섯이 되어분다. 이젠 어명은 어떠한 이 얘기가 하나도 아니 왁신고 나가젠 햅난 정짓문 입쟁이에 자락 쏘완 눈봉스가 되고, 아방은 이거 어떠한 소식이 어신곤 나오단 대문 입쟁이에 자락 쏘완 봉사가 되고, 이젠 정판스 정봉스 두 쇠경이 햅 막쟁이 짙언 얻어 먹는 신세가 되는구나.

(3-2) 감은장애긴 눈물이 앞을 가려 청산이 흑산 되고 흑산이 청산 되고 울멍 시르멍 인간이도 못 등기고 가단 보난 마통이가 마 파는 디 시난 “늦인득이 정하님아 저디 강 들어 보라. 어느 제민 인간 천하 보아짐니쎱.” 들으레 가난, “그녀네 씨배 난 넌 때문에 마 파던 마대맹이만 일히부러라. 담들로 탁탁 마쳐버리렷.” 돌아완 다시 가단 보난 마 파던 디가 또 시난, “저디 강 들어 보라.” 가시난 다시 경 욱질만 햅다. 다시 가단 마 파는 디가 시난, “저디나 강 어느 제민 인간천하 보아짐니쎱. 들어 보라.” “난 아니 가쿠다. 가민 욱질만 햅곡. 어서 마누라님냥으로 강 들어 봄서.” 이젠 감은장애기가 마 파는 디 간, “어딜로 가민 인간철 가집니까.” “올로 저영 가당 봄서 인간쳐이 햅고문햅 집이 싯습니다. 강 집이나 벌립햅 햅영. 아니 벌리건 무뽕애라도 아자싯서.”

(4-1) 가단 보난 막사리가 시연, 간 보난 어떤 할망이 싯구나. “우리 질 넘어 가는 지집아이들 날 즈무란 인박이나 새영 가쿠다. 집이나 좀 벌립서.” “아이구 우리 큰마통이 셋마통이 마 팡 오민 예펜들 집 벌립햅 욱햅여.” “우리 게벤 못뽕애라도 살양 가쿠다.” 기영 햅연 아잔 날이 즈물아 가난, 왁크롱 왁크롱 소리 난다. “할마님아 할마님아 저건 무슨 소리우과.” “우리 큰마통이 마 판 오는 소리로구냐아.” 들어 오명 햅는 말이, “예펜은 꿈에 싯구와도 새물인디 마햅로구나. 예펜들이 오란 아잔.” 조금 시난 왁크롱 왁크롱 소리 난다. “할마님아 저건 무신 소리우까.” “우리 셋마통이 마 판 오는 소리라.” 셋마통이도 오명 욱질햅다. 조금 시난 스투롱 스투롱 소리 난다. “저건 무신 소리우과.” “그건 우리 조근마통이 마 판 오는 소리라.” 올래로랑 들어 오명, “햅다 우리 집인 쇠도 웃언 햅단 보난 쇠도 배어지연 부제 될로구나. 아이구 우리 집인 예펜들도 으션 햅난 부군들이 들어 오난 부제 될로구나.”

(4-2) 이젠 큰 마통이가 마을 술만 대강이는 어명을 주고 꼰랭이는 나그네를 주고 가운데 즈동은 지가 먹고, 셋마통이도 큰마통이광 꼭 골은 햅실을 햅고, 조근마통인 마을 술만 꼰랭이펜데렌 나그넬 주고 한 즈동은 어명을 주고 더강인 오늘 햅연 날 즈물화시메 나나 먹저 햅다. 감은장애긴 즈낙을 햅영 먹젠 술은 빌언 밥을 햅고, 상을 출런 큰마통이신디 ㅈ저 가난, “우린 조상적부터 그런 굶뽕이 밥 먹여 본 디 으서 아니 먹흐라.” 셋마통이신디 들러 가도 ㅈ 기영 햅여, 조근마통이신디 들러 가난, “아이구 고맙수다. 주인이 나그네신디 즈낙을 햅영 준다 햅건마는 나그네가 주인신디 햅연 노난 이런 고마움이 어디 잇수과.” 먹엄적이 먹어 가난 큰마통인, “아이구 ㄸ냐.” “뽕곡말

29) 徐在克, 「薯童謠의 文理」, 『청계김사엽박사송수기념논총』(1973.3), 265쪽에는 “셋딸애기 어서 오라”에서부터 “네 방으로 들어 가라”까지가 두 번 반복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두번째 반복된 부분은 삭제함.

30) 徐在克, 앞의 글, 266쪽에는 ‘애’로 되어 있으나 일관성을 위해서 ‘에’로 고침.

곡.” “훈족 도라. 먹어 보저.” 빗썩 지저운덜로 훈 솟가락 떠네 손바닥에 착 부시 대기난, “어떠바라. 어떠바라. 거 춤 들른 둘다. 놔 두어시던 우리 아방 식게 흥영 먹을겘.” 셋마통이도 경 하고,

(4-3) 밤인 누어시난, 감은장애기가, “할마님 어느 아들 하나 보냅서. 나 발 실려 완 발이나 멘 도꾸저.” “큰마통아 느 강 보라.” “마 파단 짓매겨노난 그런 질타당년신디 강 날 죽어먹젠.” 셋아들도 기영 하고, 조근아들은, “기영 흠주. 죽어저도 나가쿠다. 어더님 쯤는 말 아니 들음니까.” 이젠 천상배필인 두 부처가 되는데, 쿨쿨하게 마 파던 몸 곱저 두고 줄누비 바지에 콩누비 저구리에 낙낙 창신에 코재비 보선에 외울 명진에 솟불리 당줄에 대염이 동골에 삼배도리 월통양에 환산모시 중치막에 막 출런 먼동금동 대명천치 붉아 가난, “낭군님아 저 올래에 돌광돌에 강근에 사십서.”

(5) 큰마통인 맨망탱이에 홑개 드리치고 마 파레 나가단 보난 신선님이우웬, 절을 구박구박 혼난, “성남아 날 모르쿠가젠. 나 조근마통이 아니우과.” “허 그거 내가 갈겘.” 하고, 셋마통이도 경 혼연 마 파레 맨딱 가부난, 그 옷들 맨딱 베껴 두언, 마 파는 옷으로 마라 입언, 마 파난 궁길 마르침썩 혼연, 간 보난 큰마통이 파던 궁기엔 물개똥만 착착하고, 셋마통이 파던 궁기엔 쇠똥만 착착하고, 조근마통이 마 파던 궁기엔 돌이엔 맨딱 내껴분 것이 은덩이가 되여시난, “이제랑 이겘 맥 데레 든딱 주서 눅서.” “돌 주서 노앙 강 멧허여.” “돌이고 아무거고 이 맥에 든딱 주서 눅서.” 혼짐 잔뜩 주서 노안 지언 완 뒷턱날부턴, “팔만드르 재장오리 드러 가서 이겘 꼭라 읍서.” 혼난, 조근마통인, “돌 풀레 강 무싱거앵 마라?” “그 자지영강 언마니 받을팅 혼진 줄만이 줍서 흥영 받을 읍서.” 혼연, 그 은덩일 마짜 꼭라단 웃인 큰 발이 다 나난, 천하 거부가 되여 온다.

(6) 큰큰훈 발 가운데 간 청지왓장 덕고고 암치엿장은 풀고 밤자 나난 뒷턱날은 으신 종 으신 발이 창창 소다지난, 물마쉬여 전보답가지 전답이 솟아지고 종들은, “어느 발 갈레 갑니까. 어느 논 갈레 갑니까.” 하민, “갈던 발 갈라. 갈던 논 갈라.” 흥명 펜고이 살아도 느시 감은장애기가 니염들렁 옷질 아니 흥곡 푸러진 때가 시상에 으시난, 흥롤날은 조근마통이가, “무사 부인님은 용 잘 살아지는데 경 풀성그럼수과.” “우리가 천하 거부로 잘 살아점시니 삼엄이 모다 얻어 먹는 사람들을 배왕 두일외 열나홀 거린 잔치 흥여시던 내가 니염들렁 옷질 일이 날겨우다.” “그건들 어려우라.” 그날부터 출리는 게 막 출런 거린 잔칠 흥는디 열나홀첸 두 쇠경이 혼 막맹일 쥘언 저 올래로 오라 간다. “늦엄득이 정하님이야. 저 올래로 오는 할망 할오방이랑 하다 밥을 주지 말앙 머리로 강 밥을 맥이당도 그디 가건 매기앵 흥곡 가운데로 강 앓겨들랑 양 끝을로 매경 그디 가건 애고 밥은 매기앵 흥영 즈불두룩 밥을 주지 말라.” 날이 즈몰아 가난 할망 할오방은, “아이고 아이구 두일외 열나홀체 오랐구나마는 밥도 혼적 못 얻어 먹는 팔제.” 흥명 울멍 나가젠 혼난, “가지 답서. 오늘 해언 밤 부족혼연 못 맥여시매 밤인 잘 흥영 맥이쿠다. 스랑데레 청훈니다.” 늦엄득이 정하님은 등불을 들르고 감은장애기는 밥상을 출런 들러 가가난, 두 쇠경은 “개 오랍젠.” 흥명 주랑으로 왓썩 부치난 출려 놓은 상은 다 부셔졌구나. “애이구 우리 어멍 아방은 팔즈가 기영혼연 밥 혼 상도 못 받아 먹엄구나.” 이젠 물밥으로 박색이로 하나 출려 간, “오늘 해언 못 먹여시매 잘 먹읍서. 요건 술이우다. 요건 밥이우다.” 흥명 잘 맥여 노완 나아잔, “할망넌 느랑 동녕을 홑디가. 전인 잘 살아나디가. 살아난 말이나 흠서.” “들은 말도 본 말도 웃수다. 주연이나 마릅서.” “오늘 오늘 오늘 이어 매일 장삼 매일이면 성도 열만 가실서나. 옛날 옛적 느려 사민 옷상실광 쳇상실이 아방국은 옷상실 어빙국은 쳇상실 질레에서 맛거르고 가즈 부쳐 되웁니다. 첫 조식은 은장애기 둘첸 조식은 늦장애기 싯첸 조식은 감은장애기 솟아지난 부제로 잘 살안 흥롤날은 비가 오난 야기제완 누게 덕이 사는던 들언 나를 쪼차부렀구나. 나가 감은장애기 딸이우다.” 두 쇠경은, “이게 무신 말고. 눈이나 붉아시민 볼겘.” 흥명 양 손 주먹으로 양 눈을 마주치난 눈이 붉아지연

(7) 돌 집에서 사는디 얻어 먹으멍 맹겨난 전상으로 손도 검고 사위신디 니가 난 감은장애기 어멍 아방을 모산 따로 나완 잘 살았구나.<sup>31)</sup>

31) 김계림(복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女巫 67세) 구연, 「삼공본풀이」, 徐在克, 앞의 글, 265-268쪽에서 재인용.

이상의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감은장애기가 출생하기까지의 이야기,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 (3) 감은장애기가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 (5)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의 마 파던 구덩이에서 금을 발견하는 이야기, (6) 감은장애기가 거지 잔치를 열어 눈멀고 거지가 된 친정 부모를 만나고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 (7) 감은장애기가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야기 등으로 되어 있다.<sup>32)</sup>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삼공본풀이」의 내용 가운데 「서동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와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이다. 부녀 대립(父女對立)에 의한 선화공주 축출담과 남녀 결연(男女結緣)에 의한 선화공주 성공담으로 짜여 있는 「무왕설화」에서 「서동요」는, 전반부 부녀 대립에 의한 선화공주 축출담의 핵심으로서 소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반부 남녀 결연에 의한 선화공주 성공담을 예비하는 애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sup>33)</sup> 「서동요」가 부녀 대립에 의한 선화공주 축출담의 핵심으로서 소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고, 남녀 결연에 의한 선화공주 성공담을 예비하는 애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삼공본풀이」의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와 「무왕설화」의 「서동요」를 비교해 보자. 「삼공본풀이」와 「무왕설화」에서 관련 대목들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잘 살아지단, 흐롤날은 비가 온다. 심심한단, “큰 딸애기 이레 오라. 말이나 물어 보저. 넌 누게 덕에 사느냐.” “하늘님이 덕이되다. 지에님이 덕이되다. 아방왕이 덕이되다. 어명왕이 덕이되다.” “내 조식이 분명하단. 네 방으로 들어 가라. 셋딸애기 어서 오라. 들어 보저. 셋딸애기 누게 덕에 사느냐.” “하늘님이 덕입니다. 지에님이 덕입니다. 아방왕이 덕입니다. 어명왕이 덕입니다.” “내 조식이 분명하단. 네 방으로 들어 가라. 감은장애기 들어 오라. 물어 보저. 누게 덕에 사느냐.” “하늘님이 덕입니다. 지에님이 덕입니다. 어명왕 아방 덕택인들 웃소리카마는 흠데 나는 뱃똥 선그릇이 덕입니다.” “내 조식이 아니로다. 나고가라.”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善花 : ‘善化’라고도 한다)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서울에 와서 여염집 마을의 아이들에게 마를 먹이니, 아이들이 가까이 따랐다.

32) 鄭雲采,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建國語文學』 제19·20합집(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5), 345쪽. 여기서는 金大瓛, 「女人發福 說話의 研究」(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8. 8), 87-90쪽에서 정리한 내용을 근거로 ‘(8) 감은장애기가 잔상차지 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33) 鄭雲采, 「「삼장」 및 「쌍화점」과 「서동요」의 관련 양상」, 『古典文學研究』 제10집(한국고전문학회, 1995. 12), 122-131쪽.

이에 노래를 지어 아이들을 띄어 부르게 하니, [노래에] 이르기를,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서동 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sup>34)</sup> 하였다. 동요가 서울에 널리 퍼져 궁궐에까지 이르니, 백관(百官)들이 극력 간언하여 공주를 먼 지방에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聞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一作善化)美艷無雙 剃髮來京師 以舊顏餉閭里群童 群童親附之 乃作謠 誘群童而唱之云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薔童房乙夜矣卯乙抱遣去如 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sup>35)</sup>

인용한 대목들 가운데 밑줄 친 부분들이 바로 감은장애기의 발언과 「서동요」로서 서로 대응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 둘 사이의 대응은 우선 이 부분들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촉발시킴으로써 감은장애기와 선화공주가 집에서 쫓겨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sup>36)</sup> 둘 다 부녀 대립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대응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서동요」가 이미 남녀 결연을 예비하고 있듯이 감은장애기의 발언 역시 남녀 결연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님이 덕입니다. 지에님이 덕입니다. 어명광 아방 덕택인들 웃소리까마는 홉데 나는 뱃똥 선 그릇이 덕입니다.”고 한 감은장애기의 발언이 겉으로는 비록 ‘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덕’을 구성하는 ‘뱃똥 선 그릇이’는 바로 ‘음부(陰部)’<sup>37)</sup> 내지는 ‘배꼽에서부터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선’<sup>38)</sup>을 가리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서동 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고 한 「서동요」의 성적(性的)인 ‘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39)</sup> 감은장애기의 발언에 음부가 핵심적으로 개입되어 있음은 다른 채록본 및 요약문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가) 하루는 딸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은 누구의 덕으로 사느냐?” 하고 물으니, 큰 딸, 둘째 딸은 “부모의 덕으로 산다.” 하는데, 막내 딸은, “첫째 덕은 하늘 덕이요, 둘째 덕은 땅의 덕이요, 셋째 덕은 부모 덕이요, 네째 덕은 내 뱃똥 아래 선 그릇 덕이라.” 하였다. 부모는 막내딸 감은장애기의 불효스런 답변을 듣고 요망스러운 년이라 하고 검은 암소에 의복행장 실어 놓고 계집 하녀를 불러 집에서 쫓아내었다.<sup>40)</sup>

(나) 그런데 비가 오는 어느 날 아버지는 심심하여 큰 딸과 둘째 딸을 불러 너희는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물었다. 두 딸은 다 같이 천신·자신의 덕에 부모님의 덕이라 하였다. 아버지는 두 딸을 각자 방으로 돌아가게 한 후, 셋째 딸을 불러 같은 질문을 던졌다. 셋째 딸 감은장애기는, “하느님의 덕과

34) 김완진의 해독에 따름.

35) 『三國遺事』卷第二(紀異)第二「武王」.

36) 鄭雲采, 앞의 글, 126쪽.

37) 張珍吳, 『新羅鄉歌의 研究』(형설출판사, 1993. 2). 172쪽.

38) 金大瓊, 앞의 글, 88쪽.

39) 鄭雲采, 앞의 글, 126쪽에서는, “그러나 이들이 「서동요」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서동요」처럼 ‘애정’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소문’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곧 감은장애기의 대답은 ‘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내용은 하나의 엄연한 ‘사실’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평강공주의 주장은 ‘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당위’로서 기능하고 있다. ‘애정’과 ‘소문’은 감은장애기의 대답이나 평강공주의 주장과도 구별되는 「서동요」만의 양식적 특질인 것이다.”고 하여,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서동요」의 양식적 특질을 밝히려는 목적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동요」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더 주목하는 것이다.

40) 秋葉隆 赤松智城, 『朝鮮巫俗의 研究』(大阪屋號書店, 1937), 429-436쪽. 玄丞桓,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3. 2), 120쪽에서 재인용.

지신님의 덕에 부모님의 덕이 없을까마는 배꼽 아래의 선의 덕이라.”하였다. 아버지는 불효스러운 계집애라고 크게 꾸짖고 집에서 내쫓았다. 감은장애기는 한 살 때 입던 옷과 두 살 때 입던 옷을 검은 암소에다 싣고 머슴과 함께 길을 떠났다.<sup>41)</sup>

(대) 천하 거부가 되어 고생하던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호강스럽게 살아가던 부부는 비가 촉신촉신 오는 어느 날 심심풀이로 딸 셋을 차례로 불러 누구 덕에 잘 사는가를 묻는다. 큰 딸과 둘째 딸은 하나님(하늘님)과 지에님(따님, 地下) 그리고 부모님 덕이라고 대답하여 칭찬을 받는다. 그런데 뜻밖에 막내 딸이 하나님 지에님 부모님덕도 있지만 배뜨롱(배꼽) 아래 선그릇(배꼽에서부터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선)의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한다고 대답하자 화가 난 부모는 세계 딸을 내쫓는다.<sup>42)</sup>

(라) 하루는 세 딸을 불러 “누구 복에 먹고 사느냐?”고 차례로 물으니, 위 두 딸은 “하늘의 복에다 부모님 복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했으나, 막내 딸만은, “내 배꼽 밑의 선(腺) 덕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했다. 화가 난 부모가 막내 딸을 내쫓았다.<sup>43)</sup>

(매) 하루는 두 내외가 누구 덕에 잘 사느냐고 물었더니, 두 언니는 부모님 덕이라고 하는데, 감은장애기는 부모님 덕도 있지만 배뜨롱 아래 선그릇(陰部) 덕이라고 대답하자 불효라 해서 쫓겨난다.<sup>44)</sup>

이렇게 감은장애기의 덕에 관한 발언에 자신의 음부가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음은 그 덕을 단지 덕으로만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이는 자신의 덕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를 고려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면 「삼공본풀이」의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와 「무왕설화」의 「서동요」를 비교해 보자. 「삼공본풀이」의 관련 대목만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4-1) 가단 보난 막사리가 시연, 간 보난 어떤 할망이 셋구나. “우리 질 넘어 가는 지집아이들 날 즈무란 인밤이나 새영 가쿠다. 집이나 좀 빌립서.” “아이구 우리 큰마통이 셋마통이 마 판 오민 예펜들 집 빌렷쟁 육혀여.” “우리 계멘 못똥에라도 살앙 가쿠다.” 기영 혀연 아잔 날이 즈물아 가난, 왈크롱 왈크롱 소리 난다. “할마님아 할마님아 저건 무슨 소리우과.” “우리 큰마통이 마 판 오는 소리로구낭아.” 들어 오명 혀는 딸이, “예펜은 꿈에 셋구와도 새물인디 망홀로구나. 예펜들이 오란 아잔.” 조금 시난 왈크롱 왈크롱 소리 난다. “할마님아 저건 무신 소리우까.” “우리 셋마통이 마 판 오는 소리라.” 셋마통이도 오명 목질흔다. 조꿈 시난 스투롱 스투롱 소리 난다. “저건 무신 소리우과.” “그건 우리 조근마통이 마 판 오는 소리라.” 울래로랑 들어 오명, “흠다 우리 집인 쇠도 웃언 혀단 보난 쇠도 매여지연 부제 될로구나. 아이구 우리 집인 예펜들도 으선 혀난 부군들이 들어 오난 부제 될로구나.”

(4-2) 이제 큰 마통이가 마을 술만 대강이는 어멍을 주고 풀랭이는 나그네를 주고 가운데 존동은 지가 먹고, 셋마통이도 큰마통이랑 꼭 같은 행실을 하고, 조근마통이 마을 술만 풀랭이펜테렌 나그넬 주고 한 존동은 어멍을 주고 더강인 오늘 해인 날 즈물화시메 나나 먹저 혀다. 감은장애기 존약을 하여 먹젠 술은 빌연 밤을 하고, 상을 출런 큰마통이신디 ㅈ저 가난, “우린 조상적부터 그런 굼벵이 밥 먹어 본 디 으서 아니 먹혀라.” 셋마통이신디 들러 가도 ㅈ 기영 혀여, 조근마통이신디 들러 가난, “아이구 고맙수다. 주인이 나그네신디 존약을 혀영 준다 혀건마는 나그네가 주인신

41) 金鍾雨, 「『叢童謠』研究」, 『三國遺事와 문예적 가치해명』(새문사, 1982), I : 65쪽.

42) 金大淑, 앞의 글, 88쪽.

43) 黃仁德, 「佛典系 韓國民談 研究」(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8), 112쪽.

44) 張珍昊, 앞의 책, 172쪽.

더 호연 노난 이런 고마움이 어디 잇수과.” 먹엄직이 먹어 가난 큰마통인, “아이구 ㄴ냐.” “들곡말곡.” “훔죽 도라. 먹어 보저.” 붓싸 지저운덜로 훔 숯가락 떠네 손바닥에 착 부시 대기난, “어떠바라. 어떠바라. 거 춤 돌른 돌다. 놔 두어시민 우리 아방 식게 호영 먹을겘.” 셋마통이도 경 호고,  
 (4-3) 밤인 누어시난, 감은장애기가, “할마님 어느 아들 하나 보냅서. 나 발 실려 완 발이나 맨도꾸저.” “큰마통아 느 강 보라.” “마 파던 짓매겨노난 그런 질타당년신디 강 날 죽여먹젠.” 셋아 돌도 기영 호고, 조근아들은, “기영 홉주. 죽어저도 나가쿠다. 어머님 ㄴ는 말 아니 들음니까.” 이젠 친상배필인 두 부처가 되는다, 쿨쿨하게 마 파던 몸 곱저 두고 줄누비 바지에 콩누비 저구리에 낙낙 창신에 코재비 보선에 의올 멩기에 숯불리 당줄에 대엄이 동골에 삼백도리 월통양에 한산도시 중치막에 막 출런 먼동금둥 대명천지 붉아 가난, “낭군님아 저 올래에 밍팔둘에 강근에 사십서.”

인용한 대목 가운데 (4-1)과 (4-2)는 큰마통이, 셋마통이, 조근마통이의 성품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고, (4-3)은 감은장애기와 조근마통이의 결연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밑줄 친 부분들이 조근마통이의 성품 및 감은장애기와 조근마통이의 결연에 관계되는 부분들이다. (4-1)에서 “훔다 우리 집인 쇠도 웃언 호단 보난 쇠도 매여지연 부제 될로구나. 아이구 우리 집인 예펜들도 으선 호난 부근들이 들어 오난 부제 될로구나.”라고 한 조근마통이의 발언은 감은장애기와의 결연을 예고하고 있다. (4-2)에서 “아이구 고맙수다. 주인이 나그네신디 즈낙을 호영 준다 호전마는 나그네가 주인신디 호연 노난 이런 고마움이 어디 잇수과.”라고 한 조근마통이의 발언은 감은장애기와의 관계에서 감은장애기의 능동성과 주도권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조근마통이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드디어 (4-3)에서는 감은장애기와 조근마통이의 결연이 감은장애기의 주도하에 밤 동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화공주를 주어로 하고 서동을 목적으로 해서 선화공주의 능동성과 서동의 수동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명시하고 있는 「서동요」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 대목의 이러한 특성은 「삼공본풀이」의 다른 채록본 및 요약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 그 뒤 집을 나온 감은장애기는 마 파는 삼형제를 차례로 만나 그들의 마음가짐을 시험해 보고 막내 아들과 결혼하였다.<sup>45)</sup>

(사) 길을 재촉하던 감은장애기는 날이 저물 무렵해서 한 채 오막살이를 발견하고 하룻밤 쉬어 갈 것을 간청하였다. 집을 지키고 있던 할멈이 완강히 거절했으나 감은장애기는 지지 않고 여러 말로 간청한 결과 묵어 가기를 허락받았다. 피곤하였던 그녀는 자리에 눕자마자 이내 잠이 들었다. 얼마를 잤을까. 밖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잠이 깬 감은장애기는 할멈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큰마통이 마를 파서 오는 소리라 했다. …… 잠시 후에 또 밖에서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기에 할멈에게 물었더니 셋마통이 마를 파서 오는 소리라 했다. 셋마통이도 집안에 들어 오더니 큰마통이처럼 심술을 부렸다. 또 조금 있으니 밖에서 스프렁 스프렁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에 할멈에게 무슨 소리냐고 또다시 물었더니 그건 우리 조근마통이가 마를 파서 오는 소리라 했다. 조근마통이는 집안에 들어서더니 ‘우리 집엔 소도 없는데 소가 밖에 매여 있고, 여자도 없는데 방안에 여자도 있으니 부부가 될 모양이야’ 하고는 기뻐했다. …… 이튿날 감은장애기는 술을 벌여 자기가 가지고 온 쌀로 밥을 지어 상을 차려 큰마통이와 셋마통이에게 바치니, 그들은

45) 玄丞桓, 앞의 글, 121쪽.

다 이것을 아니 먹겠다고 거절했으나, 오직 조근마통이만이 ‘고맙습니다. 주인이 나그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그네가 주인을 대접하니 이런 고마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는 맛있게 먹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 감은장애기는 조근마통이에게 마 파는 구덩이를 보여 달라 하였다더니 그는 선뜻 앞장서 가리켜 주었다. 가서 본즉 큰마통이 마 파던 구덩이엔 물개똥만이, 셋마통이 마 파던 구덩이엔 쇠똥만이 가득한데, 조근마통이 마 파던 구덩이엔 파낸 흙이 모두 은덩이(혹은 사금)였다. 감은장애기는 조근마통이에게 그 은덩이를 모두 집으로 가져 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장애 가서 팔게 하였다. 그래서 은덩이를 팔아 거부가 되고 감은장애기는 조근마통이와 결혼하여 부유하게 살았다.<sup>46)</sup>

(야) 감은장은 집을 나가 정처없이 가다가 늙은 할망이 사는 초막사리집에 이르러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한다. 밤이 되어 그 집 세 아들이 마를 캐서 돌아왔는데, 감은장은 손님을 대하는 모습과 부모를 봉양하는 태도 등에서 끝에 마통이가 제일 착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감은장은 그 집 술을 빌어서 가져 온 쌀로 밥을 지어 주인 식구에게 대접한다. 마통이네 가족은 마만 삶아 먹어서 조상이 모르는 버리지 밥이라고 쌀밥을 안 먹으려 하다가 세째 마통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는 따라서 받아 먹는다. 감은장은 세째 마통이와 결혼을 하고 신랑을 목욕시키고 의관을 갖추어 주자 두 형들이 몹시 부러워하였다.<sup>47)</sup>

(재) 막내 딸이 노파 혼자 집을 보고 있는 오막살이에 당도, 간청 끝에 하룻밤 묵게 됐다. 자다가 큰 소리가 나 잠을 깨 보니 노파의 큰 아들이 마를 캐가지고 돌아와 손님을 유숙시킨 데 대해 불평하면서 마를 삶아 머리 쪽은 모친, 꼬리 쪽은 막내 딸에게 주고, 중등은 자신이 차지했다. 잠시 후 다시 둘째 아들이 마를 캐 돌아와서는 형과 똑같은 언동을 했다. 다시 막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마를 삶아 머리 쪽은 막내 딸에게, 중등은 모친께 드리고, 자신은 꼬리 쪽을 차지했다. 날이 밝아 막내 딸이 자신이 가져 온 쌀로 밥을 지어 내니, 위 두 아들은 더러운 곰뽕이 밥이라며 내치고 말았는데, 막내 아들만이 노고를 치하하며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막내 딸이 마 캐는 곳에 아들들과 함께 가 보니, 첫째가 캐던 구덩이에는 물썩똥, 둘째의 구덩이에서는 마른 똥만 잔뜩 나오는데, 막내의 구덩이에는 금이 가득했다. 금을 집으로 날라 놓은 뒤, 위 두 아들에게 장애 지고 가 팔아 울 수 없겠느냐고 하니 형들은 ‘흙덩이를 누가 사겠느냐’며 거절했으나, 막내는 순순히 응했다. 금을 판 돈으로 전장(田庄)을 장만하여 부자가 되고, 막내 딸과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다.<sup>48)</sup>

(차) 감은장애기는 가다가 마통이를 만나 부부가 되어서, 그후부터 마통이가 캐는 감자 구덩이에서 금덩어리를 얻어 거부(巨富)가 되었다.<sup>49)</sup>

인용한 자료들은 모두 감은장애기의 능동성과 조근마통이의 수동성, 그리고 그 둘이 결연하여 부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동요」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서동요」는 「삼공본풀이」의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 및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와 그 내용상 긴밀히 관련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부녀 대립에 의한 감은장애기의 축출담과 남녀 결연에 의한 감은장애기의 성공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삼공

46) 金鍾雨, 앞의 글, I : 65-66쪽.

47) 金大淑, 앞의 글, 89쪽.

48) 黃仁德, 앞의 글, 112쪽.

49) 張珍昊, 앞의 책, 172쪽.

본풀이」의 구성에서<sup>50)</sup>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 및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는 전반부 부녀 대립에 의한 감은장애기 축출담의 핵심이며,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는 후반부 남녀 결연에 의한 감은장애기 성공담의 핵심인 것이다.<sup>51)</sup> 이로써 볼 때 「서동요」는 「삼공본풀이」의 요약에 해당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동요」는 「삼공본풀이」를 요약함으로써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 Ⅲ.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의 유래

「서동요」가 서울에 널리 퍼져 궁궐에까지 이르게 되고, 이에 백관(百官)들의 준엄한 탄핵이 일어나게 되고, 선화공주는 궁중에서 쫓겨나 귀양을 가게 되고, 도중에 선화공주는 서동을 만나 남몰래 정을 통하고, 그런 뒤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는 동요의 징험을 믿게 된다. 이를 『삼국유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요가 서울에 널리 퍼져 궁궐에까지 이르니 백관(百官)들이 극력 간언하여 공주를 먼 지방에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 [공주가] 길을 떠나게 되었을 적에 왕후는 순금 한 말을 주어 보내었다. 공주가 귀양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서동이 도중에서 나와 절하며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하였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까닭없이 미덥고 기뻐했다. 그리하여 따라가다가 남몰래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는 동요의 징험(徵驗)을 믿게 되었다.(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 將行 王后以純金一斗贈行 公主將至竄所 薯童出拜途中 將欲待衛而行 公主雖不識其從來 偶爾信悅 因此隨行 潛通焉 然後知薯童名 乃信童謠之驗)<sup>52)</sup>

그러면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 곧 ‘동요지험’은 무엇으로부터 유래한 것인가. 이에 대한 탐색은 먼저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이 서동의 욕망 실현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서동요」가 서동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책이라고 전제할 때 「서동요」는 「무왕설화」의 문맥에 비추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노래여야 한다. 곧 광범위한 전파력과 강력한 예언력이 그것이다.

장성진은 「서동요」의 전파력이 전형성과 참신성에 있는데, 전형성은 그 문장 형식이 국어의

50) 鄭雲采, 「삼장」 및 「쌍화점」과 「서동요」의 관련 상상, 『古典文學研究』 제10집(한국고전문학회, 1995. 12), 129쪽.

51) 위에 인용한 자료들 가운데 (사)와 (재)의 자료에서는 부자가 된 다음에 감은장애기와 조근마통이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있다. 부부가 된 다음 부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자료가 보여주는 순서인데도 이렇게 부자가 된 다음에 부부가 되기도 하는 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아버지의 물음에 대한 감은장애기의 대답에서 자신이 잘살게 되는 ‘덕’의 구성 요소가 자신의 음부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 곧 부자가 되는 것은 부부가 되는 것과 불가분의 것임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52) 『三國遺事』 卷第二(紀異)第二「武王」.

기본 문형에 속함에 있고, 참신성은 그 내용의 비밀상성에 있다고 하였다.<sup>53)</sup> 「서동요」의 전파력이 전형성과 참신성에 있다고 본 것은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전형성이 국어의 기본 문형에 속하는 문장 형식의 단순함에 있고, 참신성이 내용의 비밀상성에 있다고 한 것은 재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전형성과 참신성을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기억하기 쉽고 또한 기억할 만한 것이어야 전파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기억하기 쉽다고 해서 모두 기억할 만한 것은 아닐 것이며, 반대로 기억할 만하다고 반드시 기억하기 쉬운 것도 아닐 것이다. 만일 기억하기 쉽긴 하지만 기억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파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기억할 만하지만 기억하기 쉽지 않다면 그것 역시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억하기 쉽다는 것과 기억할 만하다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이어야 전파력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형성은 노래의 문장 형식에서 찾고 참신성은 노래의 내용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서동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서동요」의 전파력을 어디에서 추구하였을까. 다시 말해 「서동요」의 전형성과 참신성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이는 「서동요」가 「삼공본풀이」를 요약하여 만들어졌다는 데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곧 서동은 「서동요」의 전형성을 당시의 설화 전승자들에게 익히 알려진 「삼공본풀이」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에서 찾았을 것이며, 참신성은 당대 사회 규범과 충돌하고 있는 「삼공본풀이」의 부녀 대립 및 남녀 결연에서 찾았을 것이다. 「삼공본풀이」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당시의 설화 전승자들이 익히 알고 있음은 채록 연대가 언제인가와는 관계없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삼공본풀이」와 「온달설화」와 「무왕설화」 가운데 「삼공본풀이」가 가장 오래된 유형에 속하며, 「온달설화」가 다음으로 오래된 유형에 속하며, 「무왕설화」가 가장 뒤진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54)</sup> 또한 「삼공본풀이」의 부녀 대립 및 남녀 결연이 당대 사회 규범과 충돌하고 있음은 김유신이 자신의 누이인 문희와 춘추공을 결연시키는 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다.<sup>55)</sup> 신라 당대의

53) 張成鎭, 「鶯童謠의 형성 과정」, 『韓國傳統文化研究』 제 2 집(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 6), 235-236쪽.

54) 鄭雲采,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建國語文學』 제19·20합집(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5).

55) 처음에 문희의 언니 보희가 꿈에 서악(西岳)에 올라가 오줌을 누니 서울에 가득 찼다. 아침에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문희가 말하기를 “내가 이 꿈을 사겠습니다.” 하였다. 언니가 말하기를, “무엇을 주겠느냐?” “비단 치마로 사면 되겠습니까?” 언니가 말하기를, “좋다.” 동생이 치마를 벌리고 받으니 언니가 말하기를, “엇저녀의 꿈을 너에게 주노라.” 하였다. 동생은 비단 치마로 값을 치렀다. 열흘이 지나 김유신이 정월 오기 일(午忌日)에 자기 집 앞에서 공을 차다가 일부러 춘추공의 옷을 밟아서 옷 끈을 떨어뜨리고 말하기를, “정컨대 저의 집에 들어가 께매도록 합시다.” 춘추공이 그 말에 따르자 유신이 보희에게 께매드리라 하였다. 보희가 말하기를, “어찌 사소한 일로 귀공자를 경솔히 가까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리하여 문희에게 명하였다. 춘추공이 유신의 뜻을 알고 드디어 정을 통하였다. 그 뒤로부터 자주 왕래하게 되었다. 유신이 문희가 아이를 뱀 것을 알고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부모에게 고하지도 아니하고 아이를 배었으니 어찌된 일이냐?” 그리하여 온 나라 안에 말을 퍼뜨려 그 누이를 화형을 시키려 한다고 하였다. 하루는 선덕왕이 남산에 거둥하기를 기다려 풀 가운데 나무를 쌓아 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일어나게 하였다. 왕이 바라보고 묻기를, “무슨 연기인고?” 좌우에서 아뢰어 말하기를, “아마도 유신이 그 누이를 화형시키는가 불니

사회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부모에게 고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을 통하고 아이를 밴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이 기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삼공본풀이」가 당대 설화 전승자들에게 전형성과 참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음에 착안하여 서동은 이를 축약함으로써 광범위한 전파력을 지닌 「서동요」를 지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서동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서동요」의 예언력 곧 ‘동요지힘’을 어디에서 추구하였을까. 「서동요」의 예언력은 “동요가 서울에 널리 퍼져 궁궐에까지 이르니, 백관(百官)들이 극력 간언하여 공주를 먼 지방에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고 한 대목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동요지힘’은 이미 “백관들이 극력 간언하여 공주를 먼 지방에 귀양을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화공주가 궁중에서 쫓겨나고, 서동을 만나 결혼하고,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서동은 무왕이 되고 자신은 그 왕후가 되는 일련의 일들은 모두 백관들의 준엄한 탄핵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백관들은 「서동요」를 듣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흥분하며 노여워했을까. 그 이유는 「삼공본풀이」에서 감은장애기가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뱃똥 선 그릇이 덕”이라고 대답하여 쫓겨나는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다. 곧 「삼공본풀이」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임을 익히 알고 있는 터이므로, 이를 요약한 「서동요」 역시 아버지의 권위 및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부정하는 노래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동요」의 예언력을 「삼공본풀이」에서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뱃똥 선 그릇이 덕”으로 산다고 한 감은장애기의 대답에서 추구할 때, 백관들의 탄핵 및 선화공주의 축출까지는 그 필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선화공주가 서동을 만나고 까닭 없이 좋아서 몰래 정을 통하고 부부가 되는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 필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궁중에서 쫓겨나는 것까지야 「서동요」의 영향으로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궁중에서 쫓겨난 선화공주가 반드시 서동을 만나 부부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화공주는 서동과 남몰래 정을 통한 뒤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고 나서 ‘동요지힘’을 믿게 되었다고 했다. 적어도 선화공주에게는 서동과의 결연까지가 ‘동요지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선화공주의 믿음을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무시하지 않으려면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연이 「서동요」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제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이 서동의 욕망 실현과 관계가 있다는 애초의 전제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을 서동의 욕망 실현과 결부시키는 한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연을 ‘동요지힘’의 범위 안에 두어야 할 필연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선화공주와 서동

다.” 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말하기를, “그 누이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배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누구의 소행이고?” 이때 춘추공이 가까이 모시고 앞에 있다가 안색이 크게 변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너의 소행이로구나. 빨리 가서 구하라.” 춘추공이 명을 받고 말을 달려 죽이지 말라는 명을 진하여 화형을 저지시켰다. 그 뒤에 공개적으로 혼례를 올렸다.(『三國遺事』卷第一(紀異)第一「太宗春秋公」)

의 결연은 누구의 욕망 실현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는 「서동요」에 선화공주뿐만 아니라 서동까지도 객관화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그 단서를 얻게 된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서동 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고 하여, 선화공주와 서동이 모두 객관화되어 있는 「서동요」는 선화공주의 발언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동의 발언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서동요」는 누구의 발언이며 누구의 욕망 표현인가. 「서동요」가 선화공주의 발언도 아니고 서동의 발언도 아니라면 그것은 선화공주와 서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설화 전승자들의 발언이며 그들의 욕망 표현일 수밖에 없다. 「서동요」를 설화 전승자들의 발언과 그들의 욕망 표현이라고 하게 되면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연에 이르기까지도 ‘동요지험’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는 필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서동요」는 「삼공본풀이」의 요약이고, 「삼공본풀이」는 “뱃똥 선 그릇이 덕”으로 산다고 한 잠은장애기의 발언을 예언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설화임을 생각할 때, 설화 전승자들의 욕망 속에서 「서동요」의 예언력이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연에까지 미쳐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왕위에 오르는 일까지도 유효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동요」는 「삼공본풀이」의 또 다른 구연 형태의 하나인 셈이다. 결국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은 「삼공본풀이」의 서사 진행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sup>56)</sup>

#### IV. 결 론

본고는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에 관한 기왕의 연구 업적에, 「서동요」가 되기 이전의 전래 민요가 있었다면 그것 역시 미래에 일어날 일의 선행적 모방이라는 예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인데, 왜 서동과 선화공주의 결연 및 성공과 유사한 사례가 그러한 민요를 통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삼공본풀이」와의 관련에 주목함으로써 「서동요」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예언적인 힘 곧 ‘동요지험’은 무엇으로부터 유래하는가를 다시 탐색하고자 하였다.

「삼공본풀이」의 내용 가운데 「서동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잠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와 ‘(4) 잠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였다. 「서동요」가 부녀 대립에 의한 선화공주 축출담의 핵심으로서 소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2)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었고, 남녀 결연에 의한 선화공주 성공담을 예비하는 애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4)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었다.

56) 「삼공본풀이」를 익히 알고 있는 설화 전승자들은, 잠은장애기와 조근마통이에 얽힌 이야기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 곧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선화공주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동요」를 통하여 다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화공주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설화 전승자들의 욕망은 서동의 욕망과 동일시되고 있다. 「삼공본풀이」에서는 그저 착하기만 한 조근마통이였으나, 이제 조근마통이가 누린 행운을 능동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영웅적인 서동으로 탈바꿈시켜야 했고, 이는 설화 전승자들의 욕망 표현이기도 하다.

먼저 「삼공본풀이」의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와 「무왕설화」의 「서동요」를 비교하였다. 이 둘 사이의 대응은 우선 이 부분들이 아버지의 노여움을 촉발시킴으로써 감은장애기와 선화공주가 집에서 쫓겨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둘 다 부녀 대립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대응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서동요」가 이미 남녀 결연을 예비하고 있듯이 감은장애기의 발언 역시 남녀 결연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님이 덕입니다. 지에님이 덕입니다. 어명광 아방 덕택인들 웃소리까마는 흙대 나는 뱃똥 선 그릇이 덕입니다.”라고 한 감은장애기의 발언이 겉으로는 비록 ‘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덕’을 구성하는 ‘뱃똥 선 그릇이’는 바로 ‘음부(陰部)’ 내지는 ‘배꼽에서부터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선’을 가리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서동 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고 한 「서동요」의 성적(性的)인 ‘애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삼공본풀이」의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와 「무왕설화」의 「서동요」를 비교하였다. (4-1)과 (4-2)는 큰마통이, 셋마통이, 조근마통이의 성품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고, (4-3)은 감은장애기와 조근마통이의 결연이 감은장애기의 주도하에 밤 동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선화공주를 주어로 하고 서동을 목적으로 해서 선화공주의 능동성과 서동의 수동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명시하고 있는 「서동요」의 내용과도 일치하였다.

그런데 부녀 대립에 의한 감은장애기의 축출담과 남녀 결연에 의한 감은장애기의 성공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삼공본풀이」의 구성에서, (2)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이야기 및 (4) 감은장애기가 조근마통이를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서동요」는 「삼공본풀이」를 요약함으로써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 곧 ‘동요지험’은 무엇으로부터 유래한 것인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이 서동의 욕망 실현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서동요」가 서동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책이라는 전제하에 그 방책으로서 갖추어야 할 광범위한 전파력과 강력한 예언력의 소재를 추적하였다.

먼저 광범위한 전파력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그 전형성과 참신성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서동요」가 「삼공본풀이」의 요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서동은 「서동요」의 전형성을 당시의 설화 전승자들에게 익히 알려진 「삼공본풀이」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에서 찾았을 것이며, 참신성은 당대 사회 규범과 충돌하고 있는 「삼공본풀이」의 부녀 대립 및 남녀 결연에서 찾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삼공본풀이」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당시의 설화 전승자들이 익히 알고 있었음은 채록 연대가 언제인가와는 관계없이 등장인물의 성격으로 보아 「삼공본풀이」가

가장 오래된 유형에 속하며, 「온달설화」가 다음으로 오래된 유형에 속하며, 「무왕설화」가 가장 뒤진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또한 「삼공본풀이」의 부녀 대립 및 남녀 결연이 당대 사회 규범과 충돌하고 있음도 김유신이 자신의 누이인 문희와 춘추공을 결연시키는 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강력한 예언력의 소재를 탐색하였다. 그리하여 「무왕설화」의, “동요가 서울에 널리 퍼져 궁궐에까지 이르니, 백관(百官)들이 극력 간언하여 공주를 먼 지방에 귀양을 보내게 되었다.(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고 한 대목에 주목하였다. 선화공주가 궁중에서 쫓겨나고, 서동을 만나 결혼하고,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서동은 무왕이 되고 자신은 그 왕후가 되는 일련의 일들은 모두 백관들의 준엄한 탄핵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백관들의 노여움은 「삼공본풀이」에서 감은장애기가 누구 덕에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뱃똥 선 그릇이 덕”이라고 대답하여 쫓겨나는 대목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곧 백관들은 「삼공본풀이」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임을 익히 알고 있는 터이므로, 이를 요약한 「서동요」 역시 아버지의 권위 및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부정하는 노래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서동요」의 예언력을 “뱃똥 선 그릇이 덕”으로 산다고 한 감은장애기의 대답에서 추구할 때, 백관들의 탄핵 및 선화공주의 축출까지는 그 필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그 다음에 선화공주가 서동을 만나고 까닭 없이 좋아져서 몰래 정을 통하고 부부가 되는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 필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동요지협’에 대한 선화공주의 믿음을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이 서동의 욕망 실현과 관계가 있다는 애초의 전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금 「서동요」로 주의를 돌려 볼 때,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 서동 방을 밤에 알을 안고 간다.”고 하여, 선화공주와 서동이 모두 객관화되어 있는 「서동요」는 사실 선화공주의 발언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동의 발언일 수도 없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선화공주와 서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설화 전승자들의 발언이며 그들의 욕망 표현일 수밖에 없었다. 「서동요」를 설화 전승자들의 발언과 그들의 욕망 표현이라고 하였을 때 비로소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연에 이르기까지도 ‘동요지협’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는 필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서동요」는 「삼공본풀이」의 요약이고, 「삼공본풀이」는 “뱃똥 선 그릇이 덕”으로 산다고 한 감은장애기의 발언을 예언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설화임을 생각할 때, 설화 전승자들의 욕망 속에서 「서동요」의 예언력이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연에까지 미쳐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왕위에 오르는 일까지도 유효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서동요」는 「삼공본풀이」의 또 다른 구연 형태의 하나이며, 「서동요」의 예언적인 힘은 「삼공본풀이」의 서사 진행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金大淑, 「女人發福 說話의 研究」(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8. 8).
- 金炳旭, 「薯童謠考」, 『百濟研究』 7(백제연구소, 1976. 12).
- 金承璨, 「『三國遺事』 所載 鄉歌의 呪術的 特質」, 『三國遺事와 문예적 가치해명』(새문사, 1982).
- 金烈圭, 「鄉歌의 文學的 研究 一斑」, 『鄉歌의 語文學的 研究』(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72).
- 金鍾雨, 「薯童謠와 그 說話的 背景攷」, 『教育論集』 5(부산대 교육대학원, 1980), 『三國遺事와 문예적 가치해명』(새문사, 1982)에 재수록.
- \_\_\_\_\_, 「〈薯童謠〉 研究」, 『三國遺事와 문예적 가치해명』(새문사, 1982).
- 박노준, 「薯童謠의 歷史性과 說話性—主로 그 歷史性的 內幕에 對한 考察—」, 『語文論集』 17(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76), 『新羅歌謠의 研究』(열화당, 1982)에 재수록.
- 徐在克, 「薯童謠의 文理」, 『청계집사엽박사송수기념논총』(1973. 3).
- 엄국현, 「薯童謠 研究」, 『韓國文學論叢』 11(한국문학회, 1990. 10).
- 尹榮玉, 「薯童傳承, 그 童謠의 一考察」, 『韓國語文論叢』(우촌강복수박사회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6. 6).
- 李能雨, 「鄉歌의 魔力—그 장르의 性格에 對하여—」, 『現代文學』 21(2권 9호)(현대문학사, 1956).
- 任東權, 『韓國民謠史』(집문당, 1964).
- 林基中, 「新羅歌謠에 나타난 呪力觀」, 『東岳語文論集』 5(동악어문학회, 1967).
- 張成鎭, 「薯童謠의 형성 과정」, 『韓國傳統文化研究』 제 2 집(효성여대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6. 6).
- 張珍晷, 『新羅鄉歌의 研究』(형설출판사, 1993).
- 鄭雲采, 「「삼장」 및 「쌍화점」과 「서동요」의 관련 양상」, 『古典文學研究』 제10집(한국고전문학회, 1995. 12).
- \_\_\_\_\_, 「「서동요」의 성격 및 출현 계기와 한국 가요의 발생 조건」, 『국어교육』 90(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12).
- \_\_\_\_\_,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建國語文學』 제19·20합집(건국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5).
- 秋葉隆·赤松智城, 『朝鮮巫俗의 研究』(大阪屋號書店, 1937).
- 玄丞桓, 「「내 북에 산다」系 說話 研究」(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3. 2).
- 黃仁德, 「佛典系 韓國民談 研究」(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8).

## SUMMARY

The Formation of “Seodongyo(薯童謠)” and  
The Source of Its Prophetic Power

Un-Chae Je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ge of Liberal Arts, Kon-KuK Univers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formation of “Seodongyo(薯童謠)” and the source of its prophetic power.

Until now the relation between “Seodongyo(薯童謠)” and “Samgongbonpuri(三公본풀이)” was ignored. Consequently a folk song was believed to be the origin of “Seodongyo(薯童謠),” and an artful design of Seodong(童謠) was regarded as the source of its prophetic power. Now this view must be corrected.

“Seodongyo(薯童謠),” has two important elements. One is ‘rumour’ which caused Seonhwagongju(善花公主) to be expelled, and the other is ‘love’ which caused her to success. “Samgongbonpuri(三公본풀이)” also has two elements similar to those. After all “Seodongyo(薯童謠)” was formed by reducing “Samgongbonpuri(三公본풀이).”

In the context of “Seodongyo(薯童謠)” Seodong(薯童) and Seonhwagongju(善花公主) are objectified. So “Seodongyo(薯童謠)” is the wishful utterance of storytellers who see them objectively. After all the source of prophetic power of “Seodongyo(薯童謠)” is the story of “Samgongbonpuri(三公본풀이)” or the desire of storytellers.